지역 소식통

부안군, 잼버리 지원위원회 개최

부안군은 14일 부안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부안군 잼버리 지원위원회를 가졌다.

잼버리 지원위원회는 29명(위촉직 25, 당연직 4)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안군 세계잼버리 사업추진을 위한 정책제안, 권고, 자문 등 세계잼버리가 성공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주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회의는 8월 2일부터 7일까지 1,300여명이 참가하는 프레잼버리와 세계잼버리 추진상황에 대한 현황을 청취하고,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졌다.

특히, 오세웅 위원장과 위원들은 세계잼버리를 380여일 앞둔 시점에서 매력부안 문화군민운동의 일환으로 부안을 찾는 5만여명의 청소년들에게 깨끗하고 청결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부안군의 주요 영외과정활동장과 관광지 환경정화 릴레이 캠페인을 하자는데 뜻을 모았다. /부안=김석진 기자

고창소방서, 119응급처치 영상 공모전 홍보

고창소방서는 생활 속 안전문화를 확산시키고 안전교육·홍보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119응급처치 영상 공모전' 홍보에 나섰다.

이번 공모전은 코로나19로 인해 매년 개최되었던 심폐소생술 경연대회를 온라인 대회로 대체한 것으로 소방청이 주최하고 한국소방안전원이 주관하며 교육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대한적십자사가 후원한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국민 참여형 공모전으로 응급처치 실제 사례를 재연하거나 가상상황을 연출하여 촬영한 영상 또는 질병·부상상황별 응급처치법을 소개하는 영상을 5분 이내로 제작·제출하면 된다.

동영상은 7월 11일부터 8월 29일까지 50일간 한국소방방송 홈페이지(https://fire.go.kr)에 제출할 수 있으며 10월 중에 최종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시민 중심 으뜸 정읍'

변화의 바람… 격식과 관행 과감한 탈피 · 창의적 공직문화 '강조'

'시민 중심 으뜸 정읍'을 시정 구호로 삼아 시민 중심 시정을 강조하고 있는 민선 8기 정읍시 곳곳에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이학수 시장이 취임 초부터 불필요한 관습과 의전을 없애고 경직된 조직 분위기를 누그러뜨리며 공무원들의 창의적인 조직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

이 시장은 우선,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인사 청탁 시 승진 배제, 승진 대상자와의 간담회 등 강도 높은 인사혁신으로 주목받았다.

최근에는 비서진에 관행처럼 하던 차량이나 사무실 출입 시 문 열어주기나 현관 영접 등을 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시장도, 공무원도 시민을 위해 일하는 같은 공복(公僕)인데 특별한 의전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공직사회를 경직시키는 대표적인 요인임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각종 회의도 참석자들이 직 순이나 서열 등에 구애받지 않고 대등한 관계에서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는 원탁회의로 진행토록 했고, 직원들과 격의 없이 소통하기 위해 공식서류뿐만 아니라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보고도 받겠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첫 출근 직후부터 "시장은 시민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지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며 청사 내 전용 문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 시장의 행보는 지난 12일 있었던 사령장 교부와 12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되는 읍면동 순회 방문에서도 화제가 됐다.

사령장 교부 시 기존에 전 대상자들이 일괄적으로 선 채 진행했던 방식과는 달리 전 직원이 의자에 앉아 있다가 사령장을 받는 대상자만 일어서서 받고 앉는 식으로 진행, 격식과 관행을 탈피했다는 평가를 받은 것.

이 시장은 "이러한 관행과 격식을 과감하게 없애고 덜어내며 이를 통해 얻어낸 동력을 시민들을 위한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공직자들이 경직된 사고에서 벗어나 창의적으로 고민하고, 일하는 조직 분위기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구름골 자연휴양림' 본격 추진

2024년까지 휴양밸리 조성

고창군이 운곡습지 인근에 생태와 경관, 휴양과 체험이 결합된 자연휴양림을 본격 추진한다.

14일 고창군에 따르면 최근 산림청이 아산면 용계리 481-14번지 외 5필지 일원의 면적 54.4만㎡를 '구름골 자연휴양림'으로 지정·고시(산림청 고시 제2022-72호)했다.

이에 따라 군은 사업비 94억원을 확보해 2024년까지 건강한 삶을 위한 생태와 경관, 휴양과 체험이 결합된 자연휴양림을 만든다. 고창군 첫 휴양시설이다.

군은 여행자에 머물며 체험을 중시, 동적체험 요소를 더해 '운곡 휴양밸리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자연휴양림은 면적 54.5ha로 숲속의 집(20개소), 숲속야영장, 트리하우스, 방문자센터, 숲속놀이터, 진입로(L=400m), 주차장(50면), 산책로, 기타 부대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구름골 자연휴양림이 완성되면 운곡람사르습지, 복분자유원지, 골프존카운티선운, 선운산도립공원, 고인돌유적지, 청자요지(예정), 운곡 산림레포츠파크(예정) 등 다양한 문화·생태관광시설과 연계한 명품 관광코스가 만들어진다.

고창군 관계자는 "휴양 및 레포츠가 가능한 오감만족형 휴양밸리를 조성하고, 동시에 인근에 관광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전북의 산림관광사업의 거점으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신선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정읍시가 지역에서 생산되는 신선 농산물의 경쟁력 확대와 수출 활성화를 위해 신선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시에 따르면 최근 항공과 선박 운임이 크게 오르고,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소비침체가 지속되면서 신선 농산물 생산 농가(단체)와 수출업체가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다.

이에 시는 포장·운송 등 물류비 부담이 큰 신선 농산물 생산 농가와 수출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신청 품목에 한 해 정부 고시 품목별 표준물류비 단가의 10%를 지원한다.

사업 대상 품목은 과실류와 채소류, 화훼류, 미곡류, 인삼류, 김치류 등의 신선 농산물과 임산물이다.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 수출 품목에 한 해 농가 또는 업체가 신청할 수 있다. 올해 2분기(4~6월) 수출실적이 있는 농가와 업체는 오는 18일까지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농수산유통과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시는 지난해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통해 파프리카, 토마토, 배, 수박, 가바쌀 등 404톤에 대한 수출물류비 약 7천만 원을 지원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항공과 선박 운임 상승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와 수출업체의 물류비 부담이 경감되길 바란다"며 "이를 통해 국내 농산물과 해외를 잇는 수출길이 더욱 탄탄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해외시장에 널리 퍼트려 지역 농가와 수출업체의 소득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관내 농촌체험농장 및 치유농업 희망자 20명을 대상으로 지난 7일과 14일 하서면에 위치한 치유농장 나린뜰에서 치유농업 분야 노인치유 자격 과정을 추진하였다.

치유농장육성 · 치유프로그램 개발

부안군농기센터, 노인치유 전문인력 양성 교육 추진

부안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관내 농촌체험농장 및 치유농업 희망자 20명을 대상으로 지난 7일과 14일 하서면에 위치한 치유농장 나린뜰에서 치유농업 분야 노인치유 자격 과정을 추진하였다.

농촌체험관광 네트워크 구축 사업으로 추진되는 이번 과정은 스트레스의 이해, 대처방법 등 스트레스 관리와 노인건강운동, 우울증 예방, 노인음악체조 등 노인힐링운동지도, 뇌훈련법, 치매예방 의사소통, 웃음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 치매예방관리로 노인대상 치유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이론과 실습 교육으로 진행되었다.

부안군은 농업과 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부안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조례'를 2022년 1월 5일 개정하여 치유농업의 초석을 마련하였다.

이에 맞춰 2021년에는 아동요리 심리상담사와 실버인지 요리지도사 자격 취득 과정을, 2022년에는 스트레스 관리사, 힐링건강 지도사, 뇌건강 지도사 자격 취득 과정을 운영하여 농촌체험농장주와 치유농업 관련 농업인의 전문능력 향상 및 실전 적용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였다.

부안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교육생의 친목도모와 소통을 통해 농장 간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부안군 치유농업의 균형 발전을 이루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며, '요즘 농촌관광 소비트렌드에 맞춰 이제는 농촌체험과 함께 치유와 복지분야도 준비해야 할 때'라며 농업인 소득영역 확대를 위해 '치유농장육성과 치유프로그램 개발, 치유농업전문가 양성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김석진기자

정읍시 청년지원센터, 청년문화복합마켓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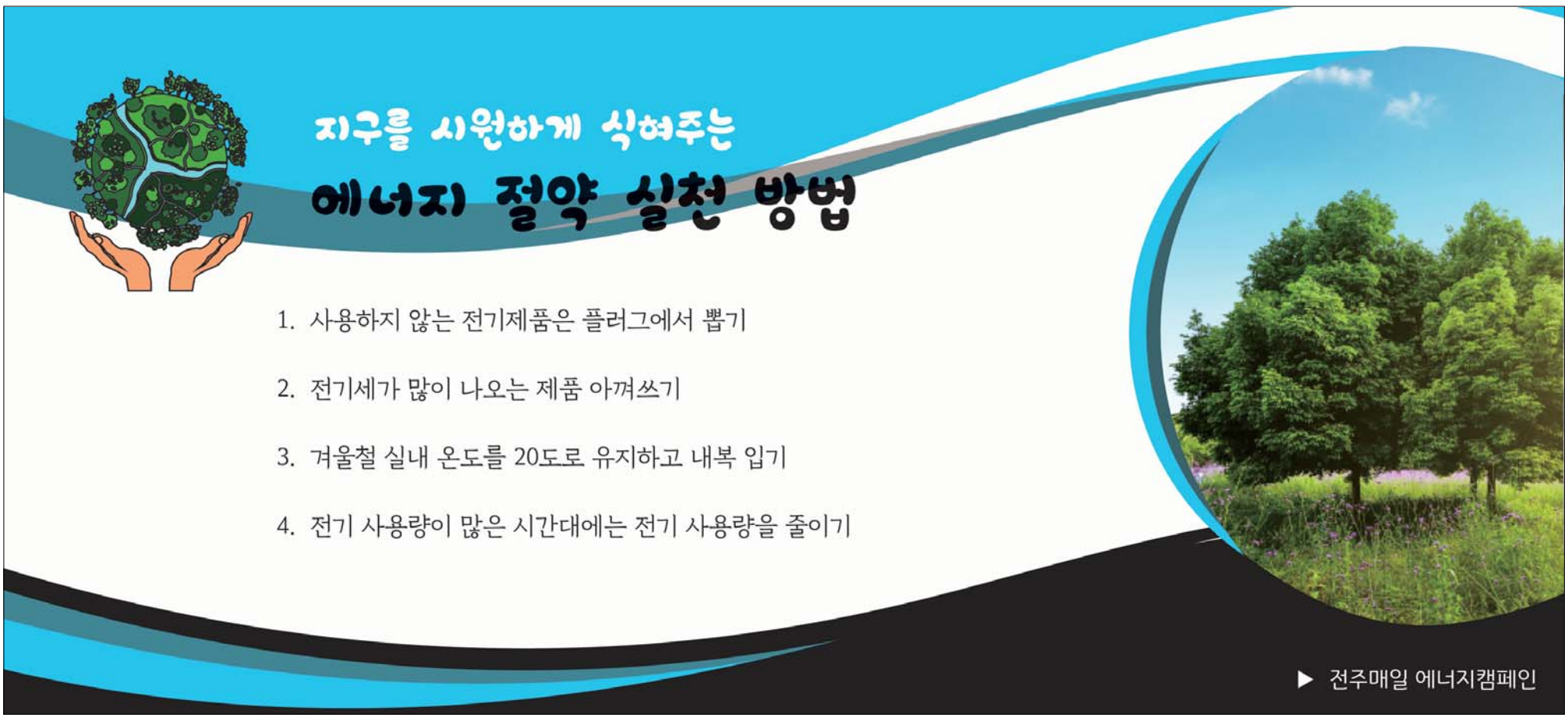
정읍시 청년지원센터 청정지대가 오는 16일 수성동 근린공원에서 청년들이 주도하는 청년문화 복합마켓 '어쩌다 사장'을 운영한다.

'어쩌다 사장'은 전라북도가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공모한 '청년마루 지원사업'에 청정지대가 선정됨에 따라 전북도로부터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청년들이 판매자로 나서 직접 만든 비즈 액세서리와 카드지갑, 그립톡, 반려동물 케이프 등 다양한 물건을 판매할 예정이다.

또한 페이스 페인팅과 가상 음주 체험, 무드등 만들기, 보드게임, 퀴즈 풀기 등의 다양한 체험부스가 마련되며, 정읍역사에 대한 OX 퀴즈에 참여하면 소정의 선물도 증정한다.

특히,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축제의 장을 만들기 위해 마술공연과 춤·노래 등 버스킹공연도 진행되며, 이를 통해 공원을 찾는 주민과 가족 나들이객에게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정지대 백정록 센터장은 "청년 상인들의 참신하고 경쟁력 있는 다양한 제품을 홍보·판매하는 행사를 마련했다"며 "청년 상인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기자